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2호 [루계 제23429호] 주제100 (2011)년 4월 22일 (금요일)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領導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 혜산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혜산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데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인 주규창동지, 인민보안부장 리명수동지, 국방위원회 국장현철해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향강도당위원회 비서들이 신영철동지, 한홍원동지, 향강도광업련합기업소 지배인 최연습동지, 향강도광업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임에서 김범동지와 광산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자나깨나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광부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광산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여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활성화를 위한 준비사업 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료해하시였다.

광산의 로동계급은 혜산청년광산의 생산을 하루빨리 활성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모든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격류속에 파감히 뛰어들어 광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을 풀기차게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치하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광산의 로동계급은 광산창설후 40여년간 불라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질 좋은 정광을 제련소들에 제때에 보내줌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혜산청년광산은 유색금속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광산을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광산앞에 나서는 당면한 과업은 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을 짚은 기간에 끝내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고품위광석이 많이 매장되어있는 혜산청년광산은 유리한 채굴조건을 가지고 있는것만큼 모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면 급속한 생산장을 이룰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광산을 굽지의 유색금속생산기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생산을 활성화하고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서는 채굴장정비를 비롯한 많

은 일감들을 처리해야 하는것만큼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중심고리에 혁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광물생산의 비약적장성을 위한 준비사업을 짚은 기일안에 끝내는것은 방대하고 아름찬 과업이지만 당시 호소에 호응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광부들의 비상한 투쟁열의가 있는 한 전망은 락관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광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굴진을 적극 앞세우고 모든 채굴 및 운반, 선광설비들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정비보수를 정상화하여 그 가능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혜산청년광산이 현대적인 채취설비들로 장비되는 조건에서 설비관리, 기술

관리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생간잠재력을

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유색금속은 나라의 부강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자원인것만큼 한당어리의 광석이라도 허실없이 모조리利用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땅사를 앞세워 예비광량을 충분히 마련하는것과 함께 최신파학기술에 기초한 심층채굴대책도 면밀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지하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사업과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광산의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언제나 명심하고 광부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생산을 하루빨리 활성화하고 광물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지도

일군들이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배짱 있게 내밀며 대중의 앞장에서 서서 대고진군의 나팔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현대회의 모범광산인 3월 5일 청년광산처럼 최신파학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광산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 로동계급의 선진문화가 활짝 꽂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거세차게 타오르는 대고조의 불길속에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이 이룩되어 우리 주체공업의 위력이 날을 따라 물라보게 장성 강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기적은 강성대국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탄생 100돐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지금 온 나라는 활화산의 용암처럼 끓어번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세기작변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격동적인 시대야말로 어머니조국의 름성번영을 위해 한몸을 깡그리 불태울 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혜산청년광산의 광부들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속에 도도히 전진하는 대오의 전렬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웅적기개와 훨승의 기상을 떨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혜산청년광산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협진준령을 넘고넘으시여 머나먼 최북단에 위치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고무격려해주시고 새로운 위훈에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완찰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혜산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아바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을 까스뜨로 루쓰동지

나는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대회에서 당신이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이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의 중임을 지니게 된것은 당신에 대한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당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전통적우의와 형제적이며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반세기 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의 강화발전과 꾸바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일

주체 100 (2011) 년 4월 19일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이탈리아, 수리아인사가 선물을, 싱가포르 조선교류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4월의 명절에 즐음하여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인 이탈리아총재그룹 리사장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수리아 라파끼아도 상공부 및 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아흐마드 하주 후세인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

이 14일과 17일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되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79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싱가포르조선교류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몽골인민당 위원장이 친서를, 총비서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몽골인민당 위원장이며 몽골 수상인 쓰. 바뜨 몰드가 친서를 보내어왔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친서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몽골인민당 총비서 오. 후엘수호가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 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려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몽골인민당 총비서

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오. 후엘수호총비서가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진보적인류가 성대히 기념 하게 될 2012년 태양절

외국인들의 반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 참가하였던 외국손님들은 20

12년 태양절을 인류사적대 경사로 맞이하는데 적극 이

바지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브리蘸 만투 나이제리아

전 국회 상원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12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

이 되는 해이다.

다음해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려는 것은 진보적인류

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

있다.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통하여 김일성주석에 대한

만민의 끝없는 흠모의 정이

뜨겁게 불러오고 있다.

진보적인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세계 자주화 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주석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치고 있다.

자베드 암씨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비범한 예지와 출중한 지략, 뜨거운 인간애와 넓은 도량을 지닌신위인이시다.

그이의 숭고한 풍모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것은 우리모두의 마땅한 도리이다.

진보적인류는 2012년 태양절을 성대히 기념할 것을 토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열렬한 애국으로 한생을 빛내이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역사의 갈피에는 백두산군들의 성스러운 자육과 더불어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의 고결한 애국의 냇이 힘력히 어려웠다.

풀을 물의 혁명 투사 강반석어머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한 이 땅의 천만군민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다.

조국과 거래를 위한 위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강반석어머님의 생애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아래 승리멸치는 이 땅에 힘력히 빛을 뿐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땅국의 그 시대에 나와 어머니사이를 오르내린 사랑과 효성을 즐기자며 관통한 냇은 애국이다!』

열렬한 애국으로 빛나는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을 둘이켜 볼 때면 아드님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애국의 길, 혁명의 길로 주지없이 떠밀어주신 뜻을 사업들이 뜨거운 격정을 불리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회고하신바와 같이 강반석어머님의 온 생애는 그 대로 수령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강반석어머님의 탄생 100돐이 되던 날 우리 어머님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였다고 하시면서 안도에서 반일인

민우격대를 창건할 때 있었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침내 반일인 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을 들으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병석에 매인 몸이 이시였지만 기겁과 풍등등에 오르시였다. 그리고 름를하고 미더운 첫 혁명적 무장 대オ를 보시는 어머님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너무도 감개무량하여 첫 무장대 오성원들의 단미며 오각별도 단체보시고 그들이 예고하는 총들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신 강반석어머님.

김형직 선생님을 잃은 커다란 암울의 이듬속에서도 자체분들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신 어머님이 이시였건만 그날만은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우리 군대인가.

얼마나 름하고 미더운 조선의 군대인가.

혁사의 그 시각 조국해방을 열렬히 헌원하시며 불굴의 의지로 혁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불묘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 선생님과 유명무명의 애국지사들의 로고에 대하여 생각하시였을 어머님이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열렬한 애국의 탄생을 담으시여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그날의 말씀에 뜨겁게 넘쳐나는 어머님의 열렬한 애국의 뜻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울린다.

애국,

정녕 그것은 강반석 어머님의

한생을 풀기자며 판통한 가장 성스

려운것이었다.

그처럼 열렬한 애국의 뜻을 깊이

간직하신 강반석어머님이시기에 항

일무장대 오를 창건하시고 남만으로

여나시기에 앞서 사연깊은 춥쌀 한

달을 들고 찾아오신 위대한 한

수령님을 나라를 찾는 항일의 전구

로 서슴없이 떠나시였다.

그처럼 의에 불타고, 열로 빛나는 강직하고 숭고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시는 위대한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참으로 흥흉한 어머님, 고마운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는 무한한 행복감을 절감하시며 혁명의 길, 투쟁의 길로 힘차게 걸음을 내딛으시였다.

그날 어머님께서 오래간만에

만나신 아드님과 하신 이야기는 대

부분이 나라를 찾는 일과 관련한

문제였다. 집안살림이나 자신의

명세가 화제에 오르면 얼른 메들을

짓고 다른 문제를 끌어내어 이야기를

끌고가고 하시였다.

아드님께서 떨나무를 해오신

그날 저녁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을 나무랐하시며 너에게는

더 큰일이 있다. 어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사람이 얼마나 많

으나,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같

길이나 빨리 가자라고 가슴치는

말씀을 하시였다.

앓는 어머님을 그냥 두고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시는 아드님께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너는 집안일을

직접 하기 전에 먼저 감옥에 계시는

삼촌을 생각하구 외삼촌을 생각해야

한다.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구 백성

들을 생각해야 한다. 왜놈들이 나라를 강탈한지도 벌써 스물두해가 되었는데 너도 조선의 사내라면 말

을 크게 먹구 걸음을 크게 떼야 할

게 아니나. 네가 장차로도 이 에미

격정때문에 집으로 찾아온 생활이라

면 아예 이 문앞에 얼ண도 하지 말

아라. 나는 그런 아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오후지 조국과 거례를 위해

어머니로서 자체분들에게 효도를

요구할수 있는 유친적련마저 다

희생시키신 강반석어머님.

그처럼 의에 불타고, 열로 빛나는

강직하고 숭고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시는 위대한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참으로 흥흉한 어머님, 고마운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는 무한한

행복감을 절감하시며 혁명의 길,

투쟁의 길로 힘차게 걸음을

내딛으시였다.

참으로 그 날의 화폭은

강반석어머님의 애국의 냇이 얼마나

열렬하고 숭고한인간을 보여

주는 혁사적획으로서 세기와 세

기기를 이어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

고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자신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

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고통에 처할

때마다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

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남만으로

밀어보내시면서 어머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훈웃을 입으시고 비래주시던

어머님의 마지막모습을 회고하며

그들이 생활해온 나라를 강화하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자신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

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고통에 처할

때마다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

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남만으로

밀어보내시면서 어머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훈웃을 입으시고 비래주시던

어머님의 마지막모습을 회고하며

그들이 생활해온 나라를 강화하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자신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

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고통에 처할

때마다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

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남만으로

밀어보내시면서 어머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훈웃을 입으시고 비래주시던

어머님의 마지막모습을 회고하며

그들이 생활해온 나라를 강화하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자신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

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고통에 처할

때마다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

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남만으로

밀어보내시면서 어머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훈웃을 입으시고 비래주시던

어머님의 마지막모습을 회고하며

그들이 생활해온 나라를 강화하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자신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준

엄하고도 시련에 찬 길에서 혁명가의

신념을 검열하는 고통에 처할

때마다 그 어떤 리념이나 철학적명

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남만으로

밀어보내시면서 어머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훈웃을 입으시고 비래주시던

어머님의 마지막모습을 회고하며

그들이 생활해온 나라를 강화하

하였다.

의지를 가다듬군 하였다고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사는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산다.

돈이라는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한다.

이것이 강반석어머님의 철학이였다.

망국의 그 세월 모진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큰 가정의 살림

이를 도달 아하는 속에서 서도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이웃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으시였다.

어머니의 한생의 갈피마다에

어려운 하찮은 사연들이 삼삼히 어려운다.

그처럼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불태

보리!』라고 추상같이 웨치시

며 일제경찰놈들과 당당히 맞서싸

우시였다. 어머님의 무서운 기상앞

에서 놈들은 기가 죽어 어찌지 못

하고 절개를 떠나고 풍

# 대를 두고 잊지 말아야 할 피절은 역사의 진리

예술영화

《맹수사냥군》을 보고

한장의 사진이 영화의 시작과 함께 펼쳐졌다.  
시기면 말뚝을 향해 훈과 군복을 입은 청체모를 자들이 두손을 합장하고 서있는 퇴색된 사진.

종교례식의 한순간을 포착한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도 짜이쩍은 사진이다.

그러나 여기에 얼마나 무서운 일제의 흉계와 간악한 침략정책이 빠져있는가를 조선에 숨겨 홍보하는 영화 『맹수사냥군』(영화문학 히종현, 강운호, 연출 표광)은 날날이 폭로하고 있다.

영화는 한세기 전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의 강도적이며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의 일상을 반영하고 있다. 작품은 비록 지난간 과거를 험하고 있지만 인류앞에 셋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이 오늘까지 철저하고는 성근한 과거청산을 회피하면서 혁사와 광복과 평화에 미여달리는 진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히는 것으로 하여 인식 교양적 가치를 가진다.

예술영화 『맹수사냥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백년속으로 새겨진 일본의 침략적 본성을 실제한 사실자료에 대 한 예술적 일반화를 통하여 발가놓은 산 고발장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인민은 부모없이 고아의 처지와 다름이 없다.』

영화는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실시하여온 중세적인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비난 첫 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제가 총칼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조선을 통치한다고 세계에 오란스럽게 광고하면 때에 현해탄을 건너 우리 나라의 남쪽 항구

로는 한무리의 왜놈들이 기여든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특별축지대』라는 미명하에 도적고양이처럼 새어드는 이놈들이 지닌 사명은 얼마나 소름끼치는 것인가.

영화는 이 강도무리들의 음모의 내막을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아성인 총독부의 밀실에서 벌어지는 비밀회합장을 통하여 적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제놈들의 야만적인 무단통치에 실패한 타격을 준 3.1 운동과 일제의 대원군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일제에게 있어서 당시 당시 일제는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 인민의 깊이 있는 반항정신이 있고 조종의 산 백두산을 민족의 명수로 내려보낼 성지로 여기는 조선민족의 억척 같은 믿음이었다.

무리이나 강도적인 조약날조로써 말살할 수 없는 조선민족의 냉파얼을 빼앗기 위해 일제는 『문화통치』의 비단장막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교활하고 음흉한 『반도인노예화시작작』을 벌리려고 획책하는 것이다.

반단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의 영을 말살하지 못하면 조선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동조동군』, 『내선일제』의 야당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침략정책 작성의 본거지인 추밀원이 이작전을 직접 작성하고 조종하는 것이다.

영화는 이 작전집행의 하수인이 되어 미처 날뛰는 요시노와 사사끼를 비롯한 『특별축지대』 놈들의 잔인한 형상을 통하여 민족배타주로의 힘들어진 일제침략자들이야말로 가장 극악하고 반인륜적인 야수

의 무리를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평범한 가정인 준범이네 일가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여 용당한 정벌을 당하고

도 오히려 더욱 살기로 넘쳐 준범과 그의 자식들을 칼칼히 죽이리라 이를 가는 요시노와 조선옷에 저를

의 옷을 같이 껴입고 일으킨은 『동조동군』을 떠들다가도 일단 조선의 혈액을 끊기 위한 제놈들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조선사람의 목숨을 파리 흡수만치도 여기지 않는

는 사사끼야말로 장기간에 걸친 일제의 침략정책을 빚어낸 인간흉혈귀들이다.

수세기 동안 후진국으로 혁사의 이름을 밀려나았던 일본이 혁강들에게 나리의 문호를 통제로 내맡긴 후 일제는 고장한것이 『정한론』이다. 무력으로 조선을 주장하는 범죄적인 행동들이 거리낌 없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혁사와 사설人们对 대한 정확하고도 과학적인 분석에 초기한 사건설정과 인간판계를 통하여 일제의 침략적 본성과 정체를 밝힌다.

조선의 모든 지맥들을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로 보고 그 지맥들에 험성을 박으면 땅이 병들고 땅이 병들면 인간도 병들게 되어 세상이 따르게 된다는 반동적인 풍수설을 국책으로 내세우는 일본반동지배층으로 하여 일본평은 승냥이소굴로 되고 만 것이다.

연미복을 입은 자, 어깨에 총이 달린 자, 총방울을 맨자, 비롯한 일본들이 나오는 일본들은 걸고양은 서로 달라도 하나같이 고향을

또던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며 기관총을 휘둘러내는 일제 『로열드』 놈들과 조금도 다투바없는 인간백정들인 것이다.

영화는 한민족의 정신력을 뿌리뽑기 위해 미처 날뛰는 여러 일본놈들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한인준범적인 범죄에 대해 티끌만 한 가책이나 반성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세월을 두고 국민들에게 걸친인것이 아말로 일본군주의가 혁사앞에 저지른 가장 큰 범죄로 된다는것을 확증하고 있다.

크지 않은 우리나라 일본땅을 써들대로 쓰들게 한 뿌리깊은 민족배타주의와 침략적 본성은 오늘도 그 독소를 여전히 풍기고 있다.

인류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침략적인 사상독소가 새 세기에도 여전히 퍼져는 일본이기에 침략역사를 미화분식하고 평토평창을 주장하는 범죄적인 행동들이 거리낌 없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혁사와 사설人们对 대한 정확하고도 과학적인 분석에 초기한 사건설정과 인간판계를 통하여 일제의 침략적 본성과 정체를 밝힌다.

조선은 혁사의 조선을 밝히고는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로 하여금 반공화국적 대시정책을 일삼으면서 평토적 앙상별로 둘째별이 날뛰는 일본본邦국의 유통임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계급적 각성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고 있다.

예술영화 『맹수사냥군』은 맹수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던 준범에게 나리 일제가 창간을 때마다 일본군을 입고 지켜내지 못한 나라라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와 의절한다.

허나 일제에 의해 삼천리강산이

나아가서는 수난많은 민족의 운명을 향해 민족을 구원해줄 장수를 부르는 친우의 모습을 보며 준범이가 택한 마지막길은 인간세상을 등지는 것뿐이었다.

설사 맹수를 사냥하다 죽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인간백정인 일제놈들의 총칼에 죽는것보다 낫다고 여겨온 준범이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을 데리고 깊은 산골에 삶의 터를 잡게 된다.

이려한 준범에게 일제놈들의 견마는 여전히 뻗치게 된다.

범죄적인 조선질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놈들에게 준범을 걸잡아서 삼킬지도 모르겠다.

너무도 맥없이 일본놈들의 군화에 좋대를 바치지 않으면 양되는 가슴아픈 배비의 쓴맛을 본 준범은 더는 아무것도 생각지 말고 가정만을 돌볼것을 결심한다. 하기로 조선군대에 산후의 의병대에 함께 나온 준범에게는 군복을 입고 지켜내지 못한 나라라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와 의절한다.

허나 일제에 의해 삼천리강산이 그대로 커다란 감옥으로 변한 엄혹한 현실은 그의 가정이라고 하여 평온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병으로 신음하는 자식을 위해 애를 끊이는 너인을 통유하기 위해 사나운 개까지 내보는 것과 일본놈을 대대로 태를 물고 살아온 적수공권의 마을사람들을 무참히 살ughter하는 것이 동양의 맹주로 자체화하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였다.

치열리는 놈들의 만행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러나 흐르는 전장에서 땅

에 칼을 박으며 백두산이 있는 곳을 향해 민족을 구원해줄 장수를 새겨주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 준범은 근대화의 흐름속에 희조말엽에 꾸려진 조선 군대의 군인이었다. 이제는 남 못지 않는 신식군대가 되었다고 토토로 의기애 넘쳐있던 준범을 비롯한 군인들에게 있어서 조선군대의 해상령은 마른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명령이었다. 이에 분연히 항거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나 그들의 총대는 일본군대의 총포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이제는 여전히 뻗치게 된다.

범죄적인 조선인민군창건 7.9회를 맞이하게 되는 뜻은 4월에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예술영화 『맹수사냥군』을 깊은 감명속에 보면서 자

관중은 민족사의 가슴아픈 교훈과 더불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령복, 장군복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한다.

왜병들이 결연이 에워싼 병영에서 총을 바치는 엄마 안되는 리조시기 군사들의 모습이 조선인민혁명군에 폐배자로서 무리를 품은 일본군놈들이 무기를 바치는 극적인 장면으로 바뀌는 영화의 절정장면은 작품의 사상을 더욱 의의있게 심어주고 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7.9회를 맞이하게 되는 뜻은 4월에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예술영화 『맹수사냥군』을 깊은 감명속에 보면서 자들이 누리고 있는 수령복, 장군복의 행운에 대하여, 지구상의 그 어떤 원주도 감히 멍에들지 못하는 막강한 군력을 가진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찬 혁사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아보고 있다. 아울러 영화의 화폭을 통하여 민족사의 피의 교훈을 다시금 새겨안으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상이 빛내이기 위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갈 굳은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

차수



## 선군시대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 선구자 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 곳 참관



【평양 4월 21일발 조선 중앙통신】 선군시대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 선구자 대회 참가자들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 고향집을 찾았다.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사에 대한 열정을 쌓으신 경상대국 건설에 이바지한 혁명선구자들이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자랑하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였다.

평양방직기계 공장을 참관한 대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 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26호 모범기대 창조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자 희망을 품고 있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 고향집을 찾았다.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사에 대한 열정을 쌓으신 경상대국 건설에 이바지한 혁명선구자들이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자랑하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밖에 평양방직기계 공장, 3대 혁명전시관,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였으며 공ون국가를 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대성산 혁명사적 판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항일의 통성인 『조선』을 풀어보면서 그들은 항일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의병대를 찾가기도 한다.

그들은 만경대 혁명사적 판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풍랑에 항거하여 개인복수도 해본 준범이는 가는 곳마다 목격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일제의 만행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

# 반 제 민 족 민 주 전 선 중 앙 위 원 회 선 전 국 월 투 쟁 선 언 발 표

【구국선전】 인터넷트싸이트에 의하  
면 반체민족민주전선(반체민전) 중  
앙위원회 선전국이 18일 4월  
투쟁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다음과 같다.

전체 국민들이여!

오늘 우리는 투쟁의 불과 더불어  
4. 19 민중봉기 5.1 봉을 맞이하고  
있다.

적수공권으로 리승만친미독재 「정  
권」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식민지통  
치에 실패한 타격을 가한 4.19민중봉  
기에는 때로부터 전쟁 반제기이상  
의 세월이 흘렀지만 항쟁용사들의 영  
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시국은 민주를 지향하고 평화와 통  
일에 살려는 전국민이 친미보수당에  
쓰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MB정권」의 죄악을 날낱이 폭로단  
죄자!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에 환장한 친  
미보수세력을 아베리카로 추방하자!  
투쟁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  
하자!

국민들이여!

대미예속과 굴종의 땅에 스스로

쓰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MB정권」의 죄악을 날낱이 폭로단  
죄자!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에 환장한 친  
미보수세력을 아베리카로 추방하자!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에 환장한 친  
미보수세력을 아베리카로 추방하자!

국민들이여!

#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 주신 주체의 태양

##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태양절에 즐하여 인디아, 에티오피아에서 집회, 강연회,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9일부터 12일 까지의 기간에 전개되었다. 행사장들은 늘어난 수령님과 함께 일정을 하고 애달 것이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탄생 100돐기념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자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었었다. 행사장에는 인디아 김일성동지로작연구원과 청년소조, 주체사상자역경생연구회, 김일성주석탄생 100돐기념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원회, 굴랄베지부소조의 인사들하고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주체사상란』, 『조선의총대』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인디아 김일성동지로작연구원과 청년소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컬어 우수하고 참다운 인민적식책들을 실시하였으며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지지의 길에 계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인민주체사상자역경생연구회 서기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인민대중의 혁신으로 등장하는 자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떨려하고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김정일각하에 대하여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 농목장, 우간다전국황평운동

김정일각하의 현명한領導에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의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고야 말 것이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탄생 100돐기념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자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이 『강성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대답』이 상영되었다.

이란조선친선 마그.SDK농목장

지배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행

복불구나리 세계의 평화와 안

전, 자주화를 위한 스트레스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것

으로 하여 전보적인 인들의 꿀

꿀모를 받고 계시는

위대한 한분이시다.

그이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

장투쟁을 벌리시어 나라를 해

방하시였으며 세계 『최강』을

차량하던 미세에게 역사상 처

기념 글

태양절에 즐하여 영국선군

정치연구회가 인터네트홈페

지에 1일과 5일 위대한 수령

전문이 책례되었다.

한편 태양절에 즐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미술전람회와 영화감상회가 중국, 이란, 우간다에서 11월부터 18일 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전람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자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

는 사진들, 선군조선의 참모들

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

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행사들에는 중국 심양시 문

화방송신문출판국, 조선족문화

의 하여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 김일성화사진과 기념

꽃들을 올렸다.

홈페이지는 『인민의 태양』

이라는 제 목의 글에 서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맞으

며 그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혁명영적에 대하여 회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태양으로 높

이루어놓았는데

그것은

행사들에는 중국 심양시 문

화방송신문출판국, 조선족문화

의 하여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 김일성화사진과 기념

꽃들을 올렸다.

홈페이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수령』이라는 제 목의 글에 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에 의거

하여 승리만을 떨쳐신데 대하여

열거하고 이 모든 성과들은

인민의 힘을 한층 더 키우게

함으로써

김일성주석을 자가들의 마음속에

높이 모시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 김일성화사진과 기념

꽃들을 올렸다.

홈페이지는 『조선인민의

시조인 김일성주석은 진정

인민의 본래로 어버이이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소개하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주체사

상란』, 『조선의총대』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에는 인디아 김일성동지로작연구원과 청년소조, 주체사상자역경생연구회, 김일성주석탄생 100돐기념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자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이 『강성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대답』이 상영되었다.

이란조선친선 마그.SDK농목장

지배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행

복불구나리 세계의 평화와 안

전, 자주화를 위한 스트레스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것

으로 하여 전보적인 인들의 꿀

꿀모를 받고 계시는

위대한 한수령이시였다

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 김일성화사진과 기념

꽃들을 올렸다.

홈페이지는 『조선인민의

시조인 김일성주석은 진정

인민의 본래로 어버이이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소개하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이 『강성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대답』이 상영되었다.

이란조선친선 마그.SDK농목장

지배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행

복불구나리 세계의 평화와 안

전, 자주화를 위한 스트레스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것

으로 하여 전보적인 인들의 꿀

꿀모를 받고 계시는

위대한 한수령이시였다

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 김일성화사진과 기념

꽃들을 올렸다.

홈페이지는 『조선인민의

시조인 김일성주석은 진정

인민의 본래로 어버이이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소개하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이 『강성대국의 불보라』, 『조선의 대답』이 상영되었다.

이란조선친선 마그.SDK농목장

지배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행

복불구나리 세계의 평화와 안

전, 자주화를 위한 스트레스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것

으로 하여 전보적인 인들의 꿀

꿀모를 받고 계시는

위대한 한수령이시였다

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꽃, 김일성화사진과 기념

꽃들을